

4-12-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 데살로니가 전서 4:1-8
말씀 제목: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색욕에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살전 4:3-7)

또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경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경시하는 자는 사람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라.”(살전 4:8)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을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사람은 속 사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의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혼을 정결케 해야 하며, 혼이 정결케 될 때에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벧전 1:22)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이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로 인하여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 드릴 수 있으리요? 우리가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려는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너희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노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와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너희 마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살전 3:9-13)

첫 사람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생명의 호흡을 자신의 진리의 말씀 안에 불어넣으심으로써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호흡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알고 진리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도록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 진리를 전파하여 혼들을 이겨움으로써 생명나무가 되어(잠언 11:30)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예언했습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딤후 3:1-5)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딤후 4:1-40)

아멘! 할렐루야!